

2021
March

한림원의
목소리
제89호

세계대학평가 기관들의 객관성 분석과 국내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언



세계대학평가 대응을 위한 국내 대학의 협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지원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매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대학평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평가 중 하나이다. 세계대학평가 결과는 대학 경쟁력을 측정하는 잣대로서 통상적 교류에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 우수 학생 선발 및 대외 홍보의 목적 등으로 그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대학에서도 세계대학평가를 활용하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 담당부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대학평가는 대학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학 자체의 성과를 점검하여 발전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체 순위를 강조함으로써 대학이 가진 다양성이나 고유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서열화를 심화하는 등의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개별 대학이 다수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대학들의 공동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세계대학평가 기관’을 주제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대학들의 내실 있는 성장과 이를 통한 국가적 위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대학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공동연구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토론회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1.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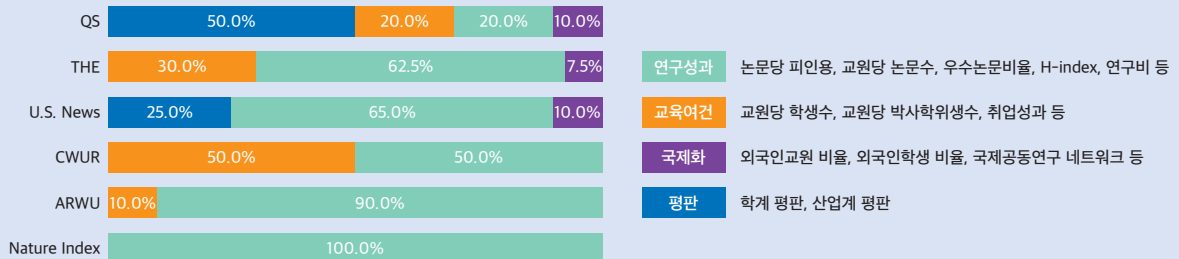
세계대학평가,
과연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가?

매년 세계 여러 기관을 통해 발표되는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세계대학평가 자체는 대학에 경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대학들의 개성 있는 정체성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대학평가의 평가체계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기관별로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세계대학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 세계대학평가 기관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지표 및 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기관별로 발표하고 있는 세계대학순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세계대학평가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대학평가의 기획·수행·활용 등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 결과 세계대학평가 기관들의 평가체계가 고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는 글로벌 통용력이 높고, 대학 홍보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가치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계대학평가 기관들은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매년 조사 방법 및 지표 산정방식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성의 문제를 떠나 세계대학평가의 결과와 그 영향력은 매우 커지고 있다.

세계대학평가 기관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02

우리는 세계대학평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세계대학평가 기관 중 QS, THE와 같은 기관의 발표 결과는 대학 사회에서 글로벌 통용성과 객관성이 높게 인정받고 있으며 대학 간 국제교류 등 과정에서 대학의 우수성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세계대학평가는 대학의 글로벌 위치를 가늠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며, 대학의 평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세계대학평가의 객관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은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대응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도의 객관성 부족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세계대학평가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까?

1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와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대학평가는 대학의 글로벌 위치를 가능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며, 대학의 평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로 세계대학평가 결과는 해외 유학생이 우리나라로의 유학을 선택하거나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고려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와 글로벌 협력연구를 통한 대학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는 세계대학평가에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대학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순위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2 경쟁에서 협력으로 대학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한 대학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가능하여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진단하며, 평가 결과는 대학의 브랜드 가치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세계대학평가 결과 순위에 따른 대학 차원의 경쟁력과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세계대학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결과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이나 정책개발, 경쟁력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세계대학평가에서 가중치가 높은 평판도 지표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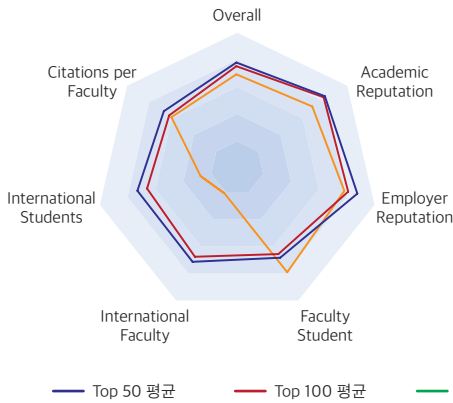
이처럼 대학의 자체 진단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개별 대학수준의 인력 운영이나 폐쇄적인 경쟁은 미래의 선도대학 모델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그 예산도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미래 고등교육은 개별 대학 단위의 경쟁이 아닌 고등교육 생태계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간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개발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들 간의 협력과 공동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위한 정부-평가기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이 세계대학평가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고는 있지만 질적인 성장 또한 함께 이루어 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QS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100위권에 진입한 국내 대학의 수가 2배로 증가하였지만, 순위 발표 대학 수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화 지표를 살펴보면 학생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이 낮고, 국제적 인지도 또한 낮으며, 산학연 협력은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국제공동연구 지표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대학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 함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평판도 상승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부와 세계대학평가 기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대학들의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 향상 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공동연구는 국내 공동연구에 비해 훨씬 높은 영향력과 인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대학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연구비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2020년도 QS Top 100 vs 국내 대학



2020년도 THE Top 100 vs 국내 대학



4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과 자원 배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공계 분야를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이 대학원 등에 진학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4단계 BK21 사업이라는 국가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수 인력의 대학원 진학은 여전히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 연구세대인 20~30년 후를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수 인력의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는 획기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대학평가 지표는 보다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가능 발전목표, 대학의 사회적 책임 등이 평가기준으로 추가 도입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부터 세계 상위권 대학들은 이러한 평가기준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과 연구자의 성과를 추적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한 수준이며 효율적, 적극적 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배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다만, 세계대학평가는 평가기관들의 수익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대학들의 순위에 대한 정부와 언론기관들의 지나친 관심과 편향적인 보도는 대학들로 하여금 자원과 인력을 과도하게 투입하게 만들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와 언론은 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들을 서열화하기보다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세계대학평가 결과가 과학기술정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육자 및 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체계가 갖추어질 때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 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단체로서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과학기술분야 석학들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회원이며, 각 회원의 지식과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기반 조성,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발굴 및 활용 그리고 정책자문 관련 사업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한림원의 목소리는,

과학기술분야 석학들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과 정책적 대안 제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을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림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홈페이지

www.kast.or.kr

블로그

kast.tistory.com

포스트

post.naver.com/kast1994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tnews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13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Tel. 031.726.7900 Fax. 031.726.7909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SSN 2635-4306